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고통 중에서 참회의 기도 (시편 143:1-12)

A penitential prayer in the midst of suffering (Psalm 143:1-12)

본 시는 시편 6, 32, 38, 51, 102, 130편과 함께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Psalm 143, in addition to Psalms 6, 32, 38, 51, 102, and 130, is known as a penitential prayer.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1. 고통 중에서 긍휼을 부르짖음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구하고, 2절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1. A cry for righteousness in the midst of suffering

The psalmist in verse 1 pleaded to God for justice and in verse 2, explained the reason for it. Since no one is righteous before God, they owe Him justice. There is no one who can be called righteous before God according to their own righteousness.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환경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고통이 자신이 범한 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진노를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 죽은 지 오랜 된 자같이 되었고, 절망에 빠진 참담한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을 연상케 합니다.

Therefore, it was very dangerous for David to ask God for justice in his situation. The psalmist didn't think that his suffering mattered to the sins that he had committed. Therefore, his only hope was that as he pleaded for God's righteousness, he could avoid wrath according to God's compassion. In addition, he said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위태한 지경에 빠져있어도 참회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that he had become like those who were long dead because of the persecution of his enemies, and that he had fallen into despair and become a dismayed man. This reminds us of the suffering of Jesus Christ, who was nailed to the cross. Therefore, no matter how dangerous a situation we fall into, if we go to God and confess our sins, He will save us.

2. 하나님은 능력있게 역사하신다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찾지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모합니다(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원수의 학대보다 하나님의 홀대인 것입니다.

2. God's mighty acts

David remembered how God had been in the past. He was absorbed in meditation, and lifted up a penitential prayer to God. He thirsted for God Himself rather than simply look for God's help (v. 6). He also prayed that God would not turn away from him. The difficulty that David faced was God's unkind treatment rather than the enemy's. He was surrounded by trials and a crisis at the same time. All he could do was beg for God's guidance. In vv. 8-10, he asked for God's guidance three times:

그는 고난 중에 있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8-10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3번 구하고 있습니다.

- 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 말씀 계시를 원함
- ②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 방향 설정을 원함
- ③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 목자의 인도를 바라는 겸손한 요청

- (1) Show me the way that I should go - a desire for a word of revelation
- (2) Teach me to do your will - a desire for determining direction
- (3) Lead me on level ground - a humble request for shepherding guidance

3. 하나님의 종의 기도

다윗은 백해 아래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이 기도를 하며 3가지 논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3. A prayer as God's servant

David prayed that he wanted to live as God's servant even under persecution. He entreated God for His love at three points in his prayer:

- ① 주의 이름을 위하여 - 다윗은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방어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온 세상이 알도록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 ② 주의 공의로 인하여 - 죄악 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구원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 ③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 인간은 구원과 구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소망을 두며 기도합니다.

- (1) for your name's sake - God promised that He would raise and protect His people. David prayed that His people would be delivered from afflictions in order that God's truth could be known to the world.
- (2) in your righteousness - Because there is no salvation for those who are evil by nature, David prayed that they would be saved by His righteousness.
- (3) in God's unfailing love - Because men are not qualified to be saved and redeemed, David prayed that they would rely on His unfailing lov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의 종의 자리는 매우 영광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익한 종이 며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회개 하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The position of God's servant can be high and glorious, but we cannot profit from this. There is no way that we can carry out our duty completely. If you confess this fact, then you realize that you owe God everything for His salvation and grace.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faithful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KIMCHI 세미나 특별헌금 드려

오늘 I, II, III 부 예배시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 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를 위한 KIMCHI 세미나 특별헌금이 5월 30일(주) 예배 시에 있다.

이번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 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의 주최, KAM은 한국선교신학회,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국로잔위원회, 김치(KIMCHI), 세

계선교연구원(CWM), 한국기독교학술원, 부산 세계선교협의회가 연합하여 이루어졌다.

KIMCHI 세미나 특별헌금은 1 구좌를 10만원으로 하고,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그 이하도 가능하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참여하기 바란다.

2010년 홍해작전

6월 6일(주일) ~ 25일(금) 새벽 5시

6월 6일(주일)부터 시작되어 6월 25일(금)까지 계속되는 2010년 홍해작전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요 8:29, 시 37:4)이며 부제는 천

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이다. 강사는 6월 6일(주)~12일(토)은 송용원 목사, 6월 13일(주)~19일(금)은 조진모 목사, 6월 20일(주)~25일(금)은 오덕교 목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홍해작전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새벽을 가르며 달려 나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으며 국가와 교회, 개인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바란다.

미리암 여성중창단 지휘자 임명



오정녀 집사

미리암 여성 중창단 지휘자로 오정녀 집사를 임명하였다.

오정녀 집사는 세종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 페루지아 지롤라모 프레스코발디 아카데미 합창지휘 석사졸

업, 미국 세퍼드 유니버시티 지휘과 석사졸업(MCM),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또한 반주자로는 김양언 선생(현 2부 예배 피아니스트)를 임명하였다.

홍해작전을 기다리며

새벽을 깨웁시다



이관규장로 (홍해작전 참모장)

홍해작전은 서울교회의 자랑이요 산역 사입니다.

서울교회 홍해작전은 92년 6월 25일에 시작했지만 실상은 그 이전 88년부터 이종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홍해작전은 개개인 성도들의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되었던 기적의 기도 작전입니다.

이와 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금년 2010 홍해작전의 개전을 알립니다.

우리 서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귀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종윤목사님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서울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셨으며, 이제 새로운 시온성의 새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모두 이 나라의 남북간의 문제와 안정되지 않은 정치적 경제적 정황들, 세계 교회의 선교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과 교회의 사명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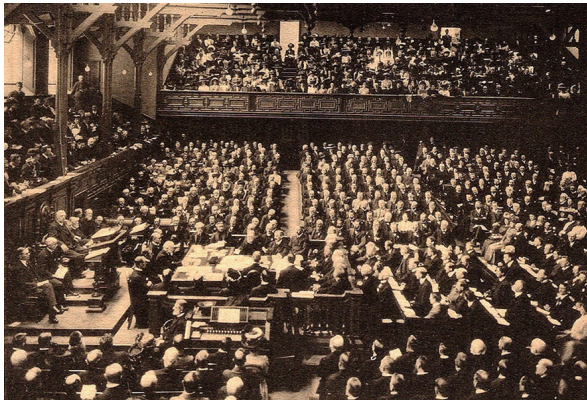
특별히 세 분 강사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을 기다리며 승리의 기적을 체험해야겠습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일깨워 서울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앞장서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의 의의

세계 선교 역사의 금자탑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

“...한국 땅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서 주재한 것은 25년 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전 스코틀랜드 사람 하나가 처음으로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국 사람들에게 나눠 줬다가, 붙잡혀서 토막 실했고 평양 대동강 독에서 불태워졌다. 그 뒤로 온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10년간의 사역을 마쳤을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 대회 전경

때 신자 수는 불과 400명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지난 15년 동안 6만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고 4만 명의 초신자가 생겼으며, 한국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약 25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너무 너무 크게 무리지어 모여들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등과 같이 군사 대국이나 통상 대국이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적 강대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발

의 일부다.

기독교 선교의 빛나는 금자탑으로 칭송되는 에딘버러 선교대회는 전 세계 150여개 선교단체에서 1,200여명의 선교사들이 참가한, 선교 역사상 유래 없는 대규모 대회였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극동의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도 마펏을 비롯해 게이, 언더우드 등 선교사와 기독교 민족운동가 윤치호 등 15명의 대표가 스코틀랜드로 갔다.

“...한국 땅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서 주재한 것은 25년 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전 스코틀랜드 사람 하나가 처음으로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국 사람들에게 나눠 줬다가, 붙잡혀서 토막 실했고 평양 대동강 독에서 불태워졌다. 그 뒤로 온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10년간의 사역을 마쳤을 때 신자 수는 불과 400명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지난 15년 동안 6만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고 4만 명의 초신자가 생겼으며, 한국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약 25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너무 너무 크게 무리지어 모여들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등과 같이 군사 대국이나 통상 대국이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적 강대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발

불신앙과 무지의 한국 땅에서 뜨거운 신앙운동과 부흥을 목격한 마펏 선교사가 당시 에딘버러에 모인 선교사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언’했던 우리 민족의 미래는 100년이 지난 오늘날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 파송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으며, 저 유명한 에딘버러 100주년 기념행사를 유치했다. 어느덧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실제로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사무엘 마펏 선교사

에딘버러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는 6월 22일 우리 교회에서의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7월 5일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 차례로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대회장은 이종윤 목사가 맡았다. 선교의 주체이자 목적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100년 만에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 것에 감사하며 성도의 기도와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

김민철(편집부)

이종운 목사 명예신학박사학위 수여식

당신의 업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최요섭 성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M.Div. 과정)



제 81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졸업식이 5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북쪽, Souderton에 위치한 Calvary church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날 졸업생 151명과 명예박사학위 수여자 3명을 축하하기 위해 재학생과 동문 그리고 가족 등 약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졸업식에 이종운 목사의 명예신학박사학위 수여를 축하하기 위해 서울교회 가족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 날 이종운 목사님은 Dr. Os Guinness, Dr. David Estrada-Herero와 함께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명예박사학위는 웨스트민스터의 동문으로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 학교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종운 목사님의 공로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선지자적 목소리를 발하고,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함께 감당한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은 것이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종운 목사님은 학위를 받은 후 "지난 부활절 집회를 마치고 잠시 학교에 방문했을 때 릴백 총장 및 교수진이 마련한 Reception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제안해서 처음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거절했지만, 영국 에딘버러에서 있었던 개혁주의 신학협회 모임에서 다시 만난 릴백 총장이 당신의 업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므로 사양 할 일이 아니라 하여 수락하였다"며 짝막하게 수여 소감을 밝힌 후 웨스트민스터의 동문으로서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에 대한 애정과 동문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본 이종운 목사님의 표정에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기쁨과 만족감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비장함과 엄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사명에 있어서는 여전히 청년과 같음에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일게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24)"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종운 목사님이 걸어온 목회 여정은 서울교회와 웨스트민스터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귀감이 되기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진 : 노창훈 집사 (뉴욕대 대학원 과정)

나의 하나님

주님, 딸 정연을 안아주소세!



고 (故)원정연 성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서울교회를 섬기게 된 지 8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8년을 돌이켜보면, 딸 정연이 암과 싸우며 지내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위임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과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눈물 어린 기도와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족 모두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임목사님,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간간 보내주신 애정과 기도, 먼저 간 딸 정연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은 대학 때 전공한 유아교육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어린 이들을 돕기 원했습니다. 또한 신학 공부를 하여 선교활동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루진 못했지만, 자신이 공부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모은 자금을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쓰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딸 정연의 이러한 뜻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코자 합니다.

"제가 먼저 가면 하늘나라 가운데서 기다릴 테니 엄마, 아빠, 거기서 꼭 만나요!" 임종 얼마 전, 딸 정연이 엄마에게 한 말입니다.

2010년 5월 17일 새벽, 정연은 자신의 신앙고백이자 가장 좋아했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가족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가운데 주님께 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용범 집사, 김영희 권사(4교구)



전도회 소식

기쁨의 여종들

오정숙 집사(루디아전도회 회장)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은 루디아전도회에서 선교후원금 마련을 위한 돈가스 만들기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가정을 위한 부식봉사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부회장과 함께 싸고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 장을 봅니다. 10시부터 교회8층에는 루디아 회원들이 모여 분주해집니다. 한편에선 재료들을 다듬어 씻고 썰며 조리하고 한편에선 핏물 뺀 고기에 우유, 양파즙, 사과즙, 미림, 후추, 전분, 소금으로 골고루 재웁니다. 40분후 함께 모여 밀가루와 계란을 입혀 빵가루에 세 번의 공정을 거치면 포장팩에 담겨 차레로 완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즐겁게 봉사하는 가운데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사랑과 정성이 담긴 루디아표 돈가스와 태화복지관에 보낼 반찬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되신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루디아전도회는 66년생부터 70년생으로 구성된 여전도회 모임입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경건회와 월례 모임,

주일에 직장인루디아 월례 모임, 셋째 주 화요일에 돈가스와 부식 만들기 봉사, 순번에 의한 수요노방전도와 주일식당봉사에 주력합니다.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서로 협력하는 임원단과 각 부 부장을 비롯한 회원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루디아전도회"라는 표어 아래 말씀, 기도, 선교, 구제, 전도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늘 바쁜 가운데도 주일 직장인 월례 모임에 참석하는 직장인 루디아 회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경속의 루디아처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며 쓰임받는 기쁨의 여종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하나님

나오미와 롯처럼



방효철 장로 (13교구)

푸르름이 더해가는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소중한 가족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서울교회에 왔을 때 노부모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러 오는 가정들이 많은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인간 관계의 첫째 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세대는 결혼 조건으로 장남은 회피하고 부모 모시기를 거부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부간의 갈등으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오미의 며느리 사랑과 롯의 시어

머니 공경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보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하며 전적으로 따르는 며느리 롯의 모습.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복을 빌어 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지요. 우리 모두가 본받고 실천하여 갈 모범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하게도 삶의 터전이 굳건했던 곳을 뒤로 하고, 어머니를 모시자며 미련 없이 떠나 온 아내 남상경 권사에게서도 그 모습이 느껴집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생하시는 모친을 싫은 내색 없이 극진히 보살피는 모습에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릅니다. 이런 가정을 주시고 서울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 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10교구의 찬양(지휘/ 이정근성도, 반주/ 홍혜란성도) "주 찬양해 (B.B.Mckinney)"와 박선영 성도의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줄리아드음대 재학중인 박선영 성도는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L.Mason)" 외 두곡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위해 세곡을 모두 자신이 직접 편곡하였다. 반주는 줄리아드음대 반주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유병희선생이 맡는다

미리암 3기 단원 모집

문화의 기독교화를 위해 창단된 미리암선교합창단의 3기 단원을 모집한다. 음악적 소양을 갖춘 세례교인으로 여자성도이다. 지금까지 미리암여성선교합창단은 대내외적으로 교회에서 필요한 선교 활동을 지원해 왔다.

박종숙집사 010-6249-7193

동정

■ 이종윤 목사는 3일(목) 로잔한국위원회 월례세미나를 소집한다. 4일(금) 웨스트민스터 한국동문회 모임을 갖는다.

■ 피선 : 7교구 이영기 장로. OCU 여호수아회 제12대 회장

■ 등단 : 11교구 오선숙성도. 월간 <한맥문학> 수필 부문 당선.

■ 수상 : 김동수 성도(2교구, 고등부, 정음순 집사 장남) 제49회 전국남녀 중별 펜싱 선수권대회 금메달

■ 해금 독주회: 노은아 집사(12교구) "사슴이 해금을 켜거늘" 6월4일(금) 오후 7시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

■ 주간식당 봉사: 베드로선교회(5월30일) 비울선교회(6.6)

■ 금주의 식사 : 조철기 집사 김영란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드리며)

■ 떡제공 : 이종윤 목사님 자녀 가정 (이미리 집사, 이미영집사, 이미경 집사)

(아버지 이종윤 목사 명예신학박사학위 수여를 감사드리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8시 30분	
세 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나의하나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김지홍 성도 (12교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가운데 당신을 만나게 하였고 당신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가 힘든 상황에서 만났는데도 당신은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지 못해 늘 미안합니다.

지금은 우리 서로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볼 때도 있지만 주님의 비전을 당신과 함께 꿈꾸며 조금씩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니 행복하기만 합니다. 회사에서 힘들 때도, 여러 일들에 지치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갈 때도 당신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늘 기쁨을 주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남은 여생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신혜 성도 (12교구)

사랑하는 당신을 만나 결혼한지 어느덧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비록 지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밖에 없어 속상할 때도 많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이라고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고 우리 가정의 소망을 꿈꿀 때 너무 행복합니다. 더욱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길 소원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4. 말씀과 기도로 흥해를 가르는 흥해작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